

기르는 어항만들기를 추구하며

서 언(우다쓰정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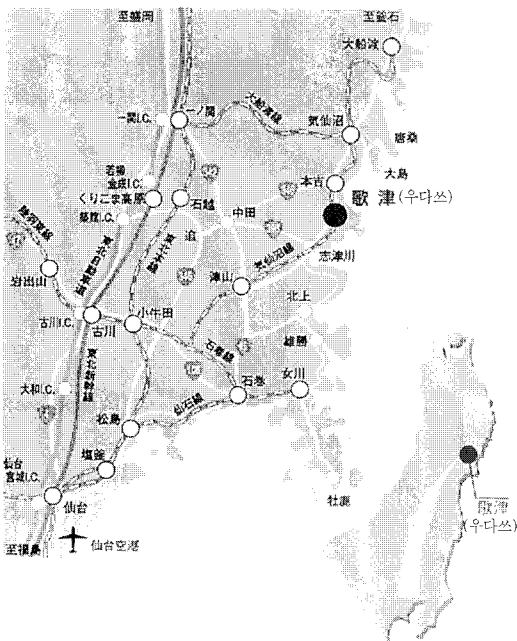
우리들의 거리 우다쓰정(歌津町)은 동북지방의 동남부, 미야기(宮城)현의 북동부에 있고, 리아스식 해안의 풍족한 경치를 지닌 南三陸金華山국정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복잡한 강 하구는 천혜의 양식어장으로 되어 있고 11곳의 어항에는 많은 어업자가 종사하고 있다.

1970년 東北대학의 지질학·고생물학과를

중심으로 한 일본지질학회의 연구그룹에 의하여 발견된 어룡화석은 세계적으로도 극히 희소하고 고생물학 연구상 특히 귀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계 최고의 어룡화석 ‘우다쓰 어룡’(천연기념물)이 발견된 것이었다. 그 발굴에서도 알 수 있듯이 2억4,200만년 이전부터 바다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해안 근처에는 태고의 낭만이 넘치는 흔적이 있다.

우다쓰정은 동경에서 약 400km, 센다이(仙台)시에서는 약 100km의 거리에 있다.

‘우다쓰’라는 거리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아이누어의 오에다쓰(긴 사빈의 岬)가 긴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며 ‘우다쓰’가 되었다고 유추하고 있다. 거리는 풍족한 자연의 혜택을 받아



〈그림-1〉 위 치 도



〈사진-1〉 ‘우에다쓰’ 갑과 평성의 숲



〈사진-2〉 매년 8월 첫째 일요일에 개최되는 '우다쓰 사랑이 오는 해변축제'

북서쪽의 풍부한 녹색산맥을 멀리서 볼 수 있고 동쪽은 푸르고 광대한 태평양을 향해 열려있다.

기후는 해류의 영향으로 내륙지방과 비교하여 여름과 겨울 한난의 차이가 작고 비교적 온화한 태평양 기후이다. 1997년의 연간 평균기온은 11.2℃, 연간 강우량은 1,183mm이고 12월부터 시작되는 겨울철에는 눈이 쌓이는 일이 거의 없다.

오늘의 우다쓰정

본 정(町)의 인구는 1955년에 7,082명이었으나 그 후 감소하여 현재는 5,778명으로 연소화 및 고령화 추세이다.

산업은 풍요로운 자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1차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1965년에는 총 취업인구 3,425명중 약 80%인 2,548명이 제1차산업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도시화의 진전, 또한 젊은 층의 취업의식 변화 등에 따라 1995년에는 1,269명(그중 수산관계 취업자 957명)으로 1965년의 약 절반이고 총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3%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1차산업이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제2차 제3차산업은 제조업, 서비스·관광산업 등의 발달에 따라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으로서 그린투어리즘, 블루투어리즘 등 제1차



〈사진-3〉 바다를 테마로 한 지방소학교의 뮤지컬

산업과 타산업과의 연계에 의해 자연을 살린 산업이 등장하여 1998년에 제정한 신장기중합계획에는 ‘100만명이 모여서 교류하는 거리… 궁지와 매력 있는 풍요로운 고장 우다쓰…’를 테마로 물이 맑고 아름다운 長須賀해안 등의 자연자원이나 세계 최고의 어룡화석 ‘우다쓰 어룡’, 승문시대의 유적, 평안시대의 經塚郡이나 寺社 등 문화유산과 융합을 모색하면서 정보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거리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어룡복, 소학교 뮤지컬인 새로운 창작예능이나 평성의 숲 종합운동공원·어룡관 시설정비 등 새로운 문화의 창작활동도 진행되고 역사와 문화, 뛰어난 자연환경 그리고 새로운 문화나 거점의 창조와 융합함으로써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 생활의 질을 높

여주고, 교류하는 거리로서 발전하고 있다.

우다쓰정의 수산업

1975년경부터 국제어업의 규제강화,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한 가격하락이나 자원감소 등은 지역경제에 공헌해 온 많은 원양 및 근해어업종사자, 관련사업자 등 정(町)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또 최근에는 생활배수나 양식작업에 따른 해수오탁과 수질악화, 가공처리에 따른 폐각처리 등 어업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 어업자가 많이 종사하고 있으므로 성어기는 물론 해변가는 활기찬 어항만들기가 진행 중이다.

정(町)의 기간산업인 수산업은 천혜의 자원과 천연의 양항이라는 좋은 조건 가운데서 전

북 명계 해조 등을 중심으로 하는 채포어업에서 어업생산물 양식의 시대로 진행하여 현재는 보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일부 가공을 합쳐 기업으로서 경영하는 단계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현 내 최고의 생산고를 과시하는 三陸미역을 비롯한 우렁챙이 가리비 굴 등은 양식기술의 발전에 따라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그리고 ‘길러서 가치를 높여서 파는 어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고갈된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전복 명계 넓치 연어 등의 방류사업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크게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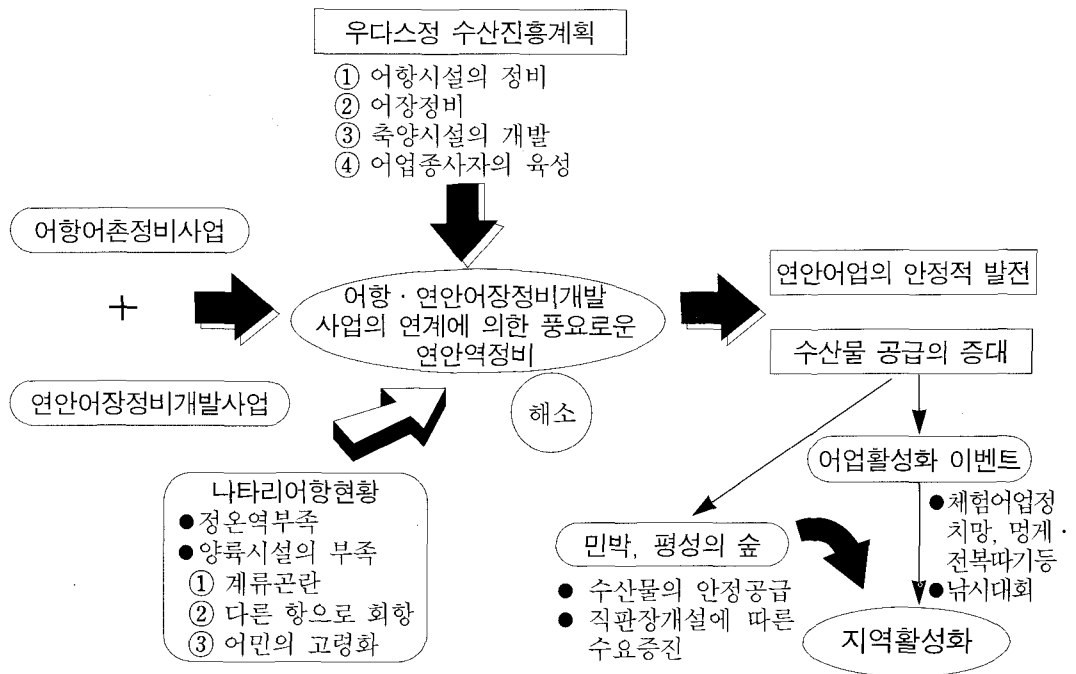
또 최근에는 자연지향의 경향도 있어 블루투어리즘에 의한 체험어업이나 낚시객의 증가로 인한 취업과 겸업기회도 생기고 있다.



〈사진-4〉 명계를 잡아 손질하는 모습



〈사진-5〉 지방 소화생에 의한 전복 치패의 방류



〈그림-2〉 어항·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의 연계에 의한 풍요로운 연안역 정비사업의 체계도

지역자원을 살린 바다의 거리 우다쓰를 향하여

(나타리(名足)어항 ‘어항·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의 연계에 의한 풍요로운 연안역정비’의 노력에 대하여)

나타리어항은 태평양에 접해 있고 三陸 근해어장에 가까우므로 연안, 근해어업의 근거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해안선은 암초로 되어 있는 천연 해변으로서 전북 멩게서식에 좋은 환경이며 옛부터 미역을 중심으로 한 천해양식업도 번성해 왔다. 최근에는 신선한 외양수의 영향도 있어

우렁행이 가리비 등도 많이 양식되어 왔지만 파랑시에는 정온도가 유지되지 않아 어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해안선 앞바다 250m의 위치에 방파제 140m를 축조함으로써 항내의 정온역이 유지되어 선양장과 물양장, 대형어선의 계류가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내항측에 증식장(축양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전북 멩게 등의 안정적인 어획과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따라 수산청 및 미야기

현의 지원아래 1997년부터 ‘어항·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의 연계에 의한 풍요로운 연안역정비’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사업은 어항어촌정비사업과 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이 각각 계획되어 있던 것이었으나 이들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사업비의 경감, 투자의 효율화를 꾀하고 사업의 효과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사업으로 축양시설의 활용에 의해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1) 블루투어리즘에 의한 체

① 기르는 어항만들기를 추구하며

험어업이 가능하게 되고 도시 부·산간부와와의 교류가 보다 활발해 진다. 아울러 청소년 교육기회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 ⇒ '100만명이 모여서 교류하는 거리 우다쓰'의 제창

(2) 고령인 어업자 및 여성·장애자의 취로기회와 '사는 보람'의 제공 ⇒ 복지형 어항정비의 추진

(3)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의하여 시장의 신뢰가 증가한다 ⇒ 가격의 안정·브랜드화의 추진(신선한 우다쓰 브랜드)

한편 현재 이 해역은 전복명계의 좋은 어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방파제 건설에 의하여 어장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어장이 생기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방파제 건설은

지역주민의 의견도 고려하면서 방파제 건설목적인 항내의 정온도를 확보한 다음 조장이나 어장환경의 보전 및 주변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상의 상황에서 어항내 및 주변해역에서 생물을 관찰하고 해저의 상태나 파고분포를 조사하는 동시에 어항주변에 분포하는 생물의 서식조건을 파악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이나 어장조성에 대한 설계조건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방파제를 투과식으로 하고, 그 파력을 이용하여 내항측의 해수교환을 피하는 동시에 해저에 블록, 사석 등을 투입하여 어장을 개선하고 우량어장으로 정비하고자 생각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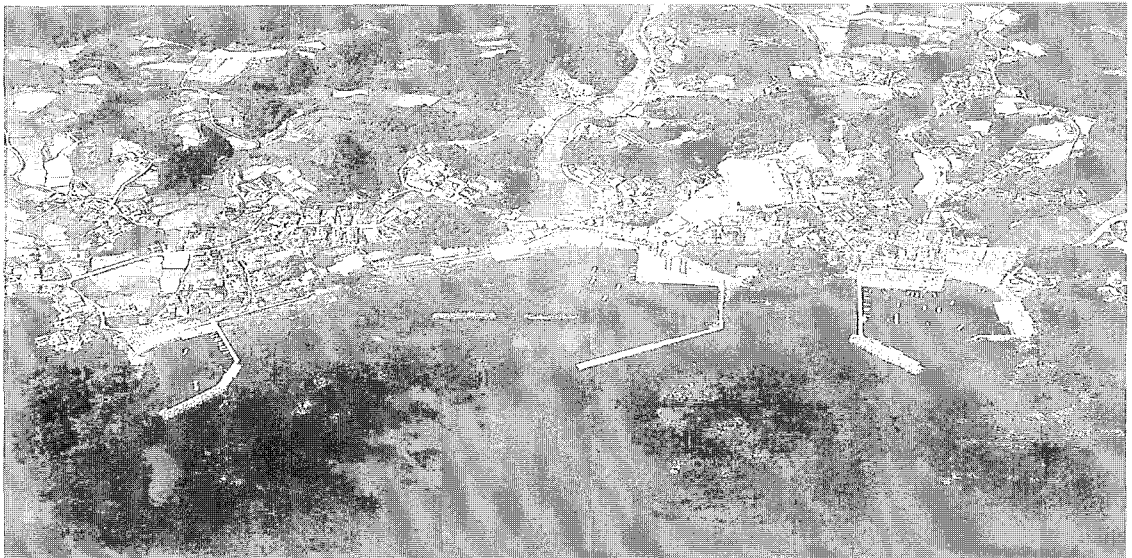
또 기르는 어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으로는 인접한 馬場어항(1종)과 겹치는 앞바다 방파제 배치형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 어항을 정(Ⅲ) 최고의 어업진흥 거점으로 자리 매김코자 한다.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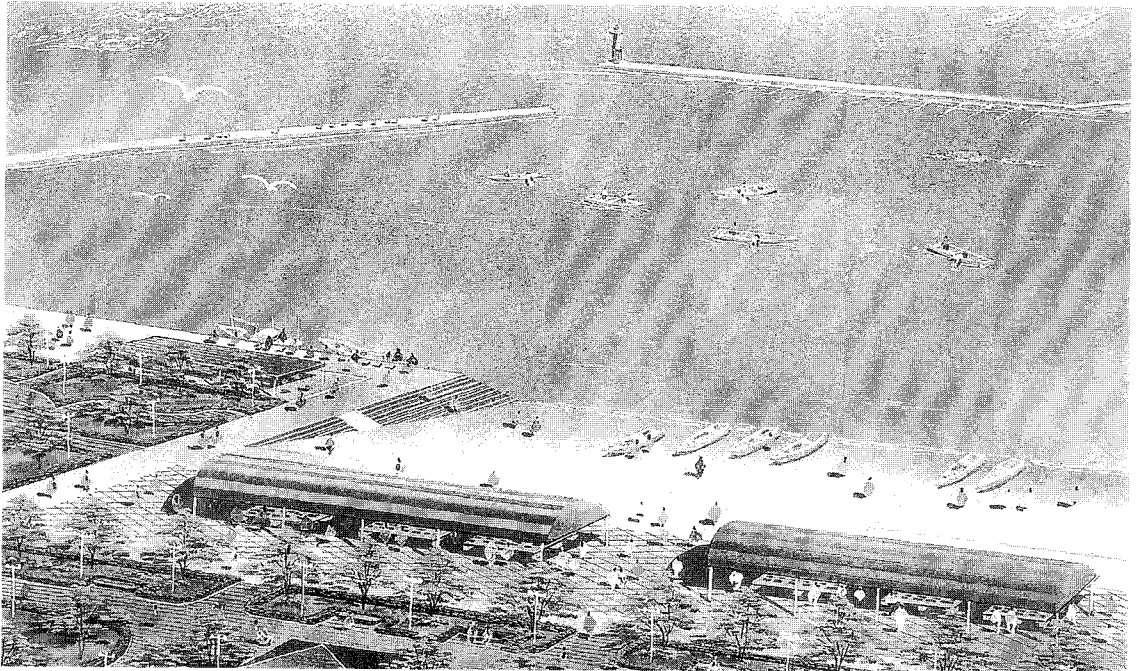
- 앞바다 방파제 L=140m
- 어장정비 A=10,000㎡
- 전체사업비 754,900천엔
- 사업기간 1997년~2005년(시설정비기간) 2006년이후(정비효과기간)

결 언

우다쓰정의 해안선은 총연장



〈사진-6〉 나타리어항 전경(우측이 馬場어항)



〈그림-3〉 어항·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의 연계에 의한 풍요로운 연안역정비의 이미지

36.2km에 이르고 그 사이에 반도나 갯이 돌출해 있고 작은 섬이 산재하는 등 연안어업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다.

‘어항·연안어장정비개발사업의 연계에 의한 풍요로운 연안역 정비’ 사업은 그 하드(hard)면이 선행되기는 쉽지만 우다쓰정 수산진흥계획과 연계를 도모하면서 지역활성화의 목적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다쓰정이 갖는 혜택받은 자연환경 ‘조풍(潮風)과 태고의 낭만이 향기로운 어룡화석의 거리, 藤原文화의 역사와 사적의 거리’, 이들 문화적 전

통을 계승하면서 정(町)의 지 침이라 할 수 있는 ‘100만명이 모여서 서로 교류하는 정(町)’의 달성을 위해서는 수산업과 타산업과의 연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할 것이다.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지 찾아오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쾌적성의 제공만이 아니고 쌍방향의 교류로 인하여 정(町) 전체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교류는 생활에 활력의 리듬을 만들며 주민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동기 부여의 기회가 되고, 교육·문화 그리고 새로운 정(町)의 산

업이나 생활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역이나 거리만들기란 사람만들기이고, 사람만들기란 ‘자기(自己)나 정(町)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가’를 기본이념이라 하면 소프트(soft)면을 다지는 것도 보다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역시 지속적인 경제적 기반의 안정이 중요하고 기르는 어업기반의 구축은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 매김되어 있다. ☞